

국 어

해설위원 : 오 대 혁 교수

본 문제의 소유권 및 판권은 (주)윌비스고시학원에 있습니다. 무단복사 판매 시 저작권법에 의거 경고조치 없이 고발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반드시 OMR카드에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OMR카드 작성시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지방직 7급 국어 출제 영역>

출제 영역	출제문항 수 (2016. 국가직7)	출제 포인트(난도)
국문법	3(5)	•[품사-접사] 난도 下: 품사를 바꾸는 지배적 접사가 들어 있는 단어 •[어휘-고유어] 난도 中: ‘음전하다’는 말의 뉘앙스가 ‘얌전하다’와 가까움을 짐작했어야 한다. •[문장-문장의 짜임] 난도 下: 명사절
어문 규정	2(4)	•[띄어쓰기] 난도 下: 조사의 띄어쓰기를 묻는 문제이다. •[외래어 표기법] 난도 下: ‘초콜릿(chocolate), 셰퍼드(shepherd)’
속담과 한자	4(4)	•[관용어] 난도 下: 입에 발린 소리, 눈에 밝히다 •[한자] 난도 中: 順延 •[한문] 난도 上: 登高自卑 •[한문] 난도 上: 無恒産無恒心
비문학	7(4)	•[말하기-토의] 난도 下: 토의 주제 •[쓰기-자료 해석] 난도 下 •[쓰기-글의 진술방식] 난도 下: 정의 •[쓰기-논리의 오류] 난도 下: 순환논증 •[독해-주제 파악] 난도 上 •[독해-내용의 파악] 난도 下 •[독해-내용의 파악] 난도 中: 금속활자
문학	4(3)	•[현대시-시어의 의미] 난도 下: ‘종소리’ •[고전시가-시조] 난도 上: ‘녀다’라는 고어. •[고전시가-시조] 난도 下 •[고전산문] 난도 下: ‘가락국기’

[총 평]

한문만 잘했다면 만점도 가능한 문제

주관적인 면이 없지 않으나 기존에 출제되었던 문제들보다 난도 하(下)의 문제가 13문제나 출제되었다. 그에 비해 난도 중(中)이 3문제, 난도 상(上)이 4문제 정도 출제되었다. 전반적으로는 쉽게 느껴질 수 있지만, 난도 상(上)의 문제가 4문제나 출제되어 난도 상(上)이 2문제나 출제된 한문 부분에 약한 수험생은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다. 한문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관련된 한자성어를 찾거나, 제시문과 관련을 맺는 한문 문장을 찾으라고 하는 형태는 최근에 나온 문제들과는 그 유형이 다른 것이었다. 그만큼 한자, 한문의 비중이 7급에서는 중요함을 확인하게 했다.

그 외의 문제들에서는 그리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을 것이다. 국가직 7급 문제에 비해 국문법이나 어문규정 문제가 매우 쉽게 출제되었다. 9급 시험보다도 더 쉽다는 느낌을 받았을 것이다. 조사의 띄어쓰기나 명사절 파악 등 기초적인 부분을 물었다. 그리고 비문학의 비중이 높아지기는 했지만 출제 내용이 매우 쉬웠던 것으로 파악된다.

기출문제 해설

문 1. 띄어쓰기가 잘못된 문장은?

- ① 이제 봄이 옵니다그러.
- ② 집에서처럼 그렇게 해야겠지?
- ③ 사과하고 배하고는 과일입니다.
- ④ 나가면서 까지도 말썽을 피우고 있다.

01. [정답] ④

[띄어쓰기] 난도 下

조사의 띄어쓰기를 묻는 문제이다. ‘까지’와 ‘도’는 모두 보조사로 앞말에 붙여 써야 옳다. ‘나가면서까지도’라고 붙여 썼어야 한다.

<오답 피하기>

- ① ‘그러’는 보조사로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 ② ‘에서’는 처소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이고, ‘처럼’은 비교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이다.
- ③ ‘하고’는 접속 조사로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문 2. 밑줄 친 단어 가운데 품사를 바꾸어 주는 접사가 포함된 것은?

- ① 그 남자가 미간을 쭈뼛다.
- ② 청년이 여자의 어깨를 밀쳤다.
- ③ 이 말에 그만 아버지의 율화가 치솟았다.
- ④ 나는 문틈 사이에 눈을 대고 바깥을 엿보았다.

02. [정답] ①

[품사-접사] 난도 下

품사를 바꾸는 지배적 접사가 들어 있는 단어를 찾으라는 문제이다. ‘쭈다’는 형용사인데, ‘-히-’라는 사동 접사가 들어가 ‘쭈히다’라는 동사가 된다. 나머지는 품사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한정적 접사가 들어 있다.

* 지배적 접사: 단어의 품사를 바꾸는 것. 예컨대, ‘지우개, 죄스럽-’에서 ‘-개, -스럽-’은 ‘지우-, 죄’의 품사를 바꾸는 지배적 접사.
* 한정적 접사: 단어의 의미를 한정할 뿐 그 품사를 바꾸지는 못하는 접사. 예컨대, ‘지붕, 드넓다’에서 ‘-웅, 드-’는 원래의 어기 ‘집, 넓-’의 품사를 바꾸지는 못하는 한정적 접사.

<오답 피하기>

- ② 강세 접미사 ‘-치-’는 품사를 변화시키지 않는 한정적 접사이다.
- ③ ‘쑈다’라는 동사에 ‘위로’의 의미를 갖는 접사 ‘치-’가 붙더라도 품사는 변화하지 않는다.
- ④ ‘보다’라는 동사에 ‘몰래’의 의미를 갖는 접사 ‘엿-’이 붙더라도 품사는 변화하지 않는다.

문 3. 단어의 뜻풀이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암팡지다 - 몸은 작아도 힘차고 다부지다.
- ② 음전하다 - 말이나 행동이 음흉한 데가 있다.
- ③ 객쩍다 - 말이나 하는 것이 실없고 싱겁다.
- ④ 흰소리 - 터무니없이 자랑으로 떠벌리거나 거드럭거리며 허풍을 떠는 말

03. [정답] ②

[어휘-고유어] 난도 中

고유어의 의미는 말의 뉘앙스를 잘 고려해서 그 의미를 짐작해야 한다. ‘음전하다’는 말의 뉘앙스가 ‘얌전하다’와 가까움을 짐작했어야 한다.

* 음전하다: (사람이나 그 태도가)얌전하고 겸손하다. 유의어로 ‘얌전하다’가 있다. 예) 옥분이는 커 갈수록 점점 음전한 처녀가 되었습니다.

* 음큼하다: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달리 엉뚱한 욕심을 품고 있거나 음흉하다.

<오답 피하기>

- ① 예) 그가 실직한 뒤에 암팡진 아내는 두 팔을 걷어붙이고 장사를 시작하였다.
- ③ ‘객쩍다’의 ‘객’이 나그네를 뜻하는 ‘客’에서 온 말이다. 그래서 지나는 나그네처럼 사정을 잘 모르고 내뱉는 소리 따위를 할 때 쓰는 표현이 되었다 하겠다. 예) 객쩍은 소리 그만하고, 할 일 없으면 이리 와서 일이나 좀 거들여라.
- ④ 예) 그 애는 흰소리를 하며 설치기는 하는데 제대로 하는 일은 없다.

문 9. 외래어 표기 규정에 모두 맞는 것은?

- ① 브러쉬, 케익 ② 카페트, 파리
③ 초콜릿, 셰퍼드 ④ 슈퍼마켓, 서비스

09. [정답] ③

[외래어 표기법] 난도 下

‘초콜릿(chocolate)’이 맞고, ‘초콜렛’은 잘못된 표기이다.
‘셰퍼드(shepherd)’는 개의 한 품종으로 ‘셰파트’라고 쓰는 것은 잘못이다.

<오답 피하기>

- ① ‘브러시(brush)’가 맞다. 브루시(X), 브러쉬(X).
‘케이크(cake)’가 맞다.
② ‘카펫(carpet)’이 맞다. 카페트(X), 카펨(X), 카펠(X).
‘파리(Paris)’가 맞다. ‘빠리’라 쓰면 틀린다.
④ ‘슈퍼마켓(supermarket)’이 맞다.(받침에는 ‘ㄱ, ㄴ, ㄹ, ㅁ, ㅂ, ㅅ, ㅇ’만 쓸 수 있다.)
‘서비스(service)’가 맞다.

문 10. 다음 글과 뜻이 통하는 속담은?

君子之道 辟如行遠必自邇 辟如登高必自卑 (* 辟은譬와 같다)
- 「中庸」에서 -

- ① 절하고 뺨 맞는 일 없다.
② 급하면 부처 다리를 안는다.
③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이다.
④ 가자니 태산이요, 돌아서자니 숯산이라.

10. [정답] ③

[한문] 난도 上

‘君子之道 辟如行遠必自邇 辟如登高必自卑(군자지도 벽여행원필자이 벽여등고필자비)’는 “군자의 도는 비유컨대 먼 곳을 감에는 반드시 가까운 곳에서 출발함과 같고, 높은 곳에 오름에는 반드시 낮은 곳에서 출발함과 같다.”라고 번역된다. 《중용(中庸)》 제15장에 나오는 표현으로 ‘등고자비(登高自卑)’라는 한자성어가 여기에서 생겨났다. 이는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이다’라는 속담과 관련이 된다. * 辟(임금, 법, 허물 벽)은 이 글에서 ‘譬(비유할 비)’의 의미로 썼다.

<오답 피하기>

- ① 절하고 뺨 맞는 일 없다: 누구한테나 겸손한 태도로 공대를 하면 남에게 봉변하지 않는다는 말.
② 급하면 부처 다리를 안는다: 일이 없을 때에는 분향을 게을리 하다가 줄지에 급한 일을 당하면 어쩔 줄 몰라 부처 다리를 안는다는 뜻으로, 평소애 부지런히 하여 급한 일을 당하더라도 당황하지 말라는 말.
④ 가자니 태산이요, 돌아서자니 숯산이라: 앞에도 높은 산이고 뒤에도 높은 산이라는 뜻으로,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할 난처한 지경에 이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문 11. 다음 시의 ‘나’를 형상화한 표현이 아닌 것은?

나는 떠난다. 청동(靑銅)의 표면에서
일제히 날아가는 진폭(振幅)의 ㉠ 새가 되어
광막한 하나의 울음이 되어
하나의 소리가 되어.

인종(忍從)은 끝이 났는가.
청동의 벽에
‘역사’를 가두어 놓은
칠혹의 ㉡ 갈방에서.

나는 바람을 타고
들에서는 푸름이 된다.
꽃에서는 웃음이 되고
천상에서는 ㉢ 악기가 된다.

먹구름이 깔리면
하늘의 꼭지에서 터지는
뇌성(雷聲)이 되어
가루 가루 가루의 ㉣ 율향이 된다.

- 박남수, 「종소리」 -

- ① ㉠ ② ㉡
③ ㉢ ④ ㉣

11. [정답] ②

[현대시-시어의 의미] 난도 下

이 작품에서 ‘종소리’는 구속과 억압으로부터 벗어난 자유의 이미지를 비유하면서, 자유의 확산과 자유를 추구하는 정신을 주체화하고 있다.

종의 몸체인 ‘청동의 벽’은 ‘칠혹의 감방’으로 표현되면서, 그 상태는 종소리를 어두운 갈옥에 가두어 놓은 ‘억압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가운데 울려나오는 종소리는 ‘푸름, 웃음, 악기, 뇌성’ 등으로 나아가 자유로운 ‘새’의 형상으로 은유화되고 있다.

문 12. 다음 글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민주공화국은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국민들 개개인이 벌이는 경쟁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그 수단과 방법을 적절하게 제약하는 규칙을 도입했다. 이것이 법률 시스템이다. 법률 시스템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다양한 하위 법령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일 중요한 것이 헌법이다. 민주공화국에서 개인들은 마음껏 남과 경쟁해도 된다. 다만,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렇다. 나는 나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 없이 행사할 수 있다. 남을 죽이거나 팔 다리를 부러뜨리거나 속이거나, 그 밖에 법률이 명시적으로 금지한 다른 부당한 방법을 쓰지 않는 한 그렇다. 경쟁의 승자는 패자보다 더 많은 자원과 권력과 명예를 얻으며 그 정당성을 인정받는다.

- ① 민주공화국은 개인들에게 경쟁의 자유를 보장한다.
② 민주공화국에서는 법률 시스템을 통해 개인들 사이의 경쟁을 유발한다.
③ 민주공화국에는 경쟁의 수단과 방법을 제약하는 법률 시스템이 있다.
④ 민주공화국에서 경쟁의 승자는 패자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받는다.

12. [정답] ②

[독해-내용의 파악] 난도 下

선택지를 먼저 보더라도 답이 금방 보이는 문제였다. 법률 시스템에 대한 진술에서 ②와 ③이 서로 배치되고 있다. ②는 법률 시스템이 개인들 사이의 경쟁을 유발한다고 하고, ③에서는 경쟁을 제약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 상식적인 선에서 보더라도 법률 시스템은 경쟁의 제약이 자연스럽지 경쟁의 유발은 부자연스러움을 알 수 있다. ②가 문제가 있는 진술처럼 보이는데, 지문을 확인해 보면 ‘경쟁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그 수단과 방법을 적절하게 제약하는 규칙’이 ‘법률 시스템’이라고 하고 있어 ②가 답임을 확신하게 한다.

문 13. 다음 글의 논리적 오류와 같은 종류의 오류가 있는 것은?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건강합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사람은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운동을 열심히 하기 때문입니다.

- ① 분열은 화합으로 극복할 수 있다. 화합한 사회에서는 분열이 일어나지 않는다.
② 미확인 비행 물체(UFO)가 없다는 주장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미확인 비행 물체는 존재한다.
③ 지금 서른 분 가운데 열 분이 손을 들어 반대하셨습니다. 손을 안 드신 분은 모두 제 의견에 찬성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④ A 지역에서 생산한 사과도 맛이 없고, B 지역에서 생산한 사과도 맛이 없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맛있는 사과를 맛볼 수 없을 것입니다.

13. [정답] ①

[논리의 오류] 난도 下

순환논증의 오류를 보여주고 있다. 순환논증의 오류는 논증의 결론 자체를 전제의 일부로 사용하는 오류를 말한다. 제시문과 ①이 그러한 오류를 보여준다.

<오답 피하기>

- ② 무지에 호소하는 오류. 어떠한 사실이나 인과가 존재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우므로,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함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말이다.
③ 이 세상 모든 일을 흑백 이분법으로 보려는 흑백사고의 오류를 보여주고 있다. 흑백사고의 오류는 양자택일식 논법을 구사하곤 한다.
④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보여주고 있다.

문 14. 다음 글의 내용을 적절하게 이해한 것은?

조선 시대에 금속활자는 희귀한 물건이었고, 오로지 국가만이 소유할 수 있었다. 조선 전기는 물론이고 조선 후기에도 사정은 다르지 않았다. 민간에도 금속활자가 몇 종 있었지만 극소수 양반가의 소유였을 뿐이다. 그것을 제외하면, 금속활자는 온전히 국가의 소유였다. 왜 국가가 금속활자를 독점했던 것일까?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 고안에는 상업적 동기가 작용했다. 당시 독일에서는 라틴어 문법 서적 등 인쇄물에 대한 민간의 수요가 많았고, 그 수요는 주로 목판 인쇄에 의해 충족되고 있었다. 구텐베르크는 인쇄물의 생산 가격을 낮추기 위해 금속활자 인쇄술을 고안했던 것이다. 즉 서양의 인쇄술은 상업적 목적으로 민간의 필요에 의해 민간에서 제작되었다. 반면 조선의 금속활자는 국가의 필요에 의해 국가에서 제작한 것이었다.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은 어떻게 널리 전파될 수 있었을까? 조선에서는 왜 국가가 금속활자 인쇄술을 독점했을까? 여기에는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본질적인 요인은 표의 문자인 '한자'와 표음 문자인 '라틴 자모' 사이의 차이 때문이다. 조선조의 금속활자는 한자 활자가 대부분이었다. 극단적으로 말해 한문으로 쓰인 책을 어떤 장에도 없이 인쇄하자면 한자 수만큼이나 많은 활자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더욱이 자주 쓰이는 글자는 더 많은 수가 필요하니, 실제 필요한 한자 활자는 한자 전체의 수에 몇을 곱해야 할 것이다.

금속활자는 결코 대량 인쇄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다. 목판은 일단 새겨지지만 하면 수요가 많은 책을 복제하는 데 유리했지만, 새로운 수요에 재빨리 대응하기에는 속도가 너무나 더디었다. 또한 책의 종 수만큼 별도의 목판을 제작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금속활자는 새로운 수요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었다. 다시 말해 다품종 소량 생산이 조선 금속활자의 존재 의의였다.

- ① 문자의 성격 차이가 금속활자 인쇄술의 전파에 영향을 미쳤다.
- ② 일반적으로 조선의 목판 인쇄는 새로운 수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다.
- ③ 서양과 조선에서의 금속활자 인쇄는 서적의 대량 생산, 대량 공급을 목적으로 하였다.
- ④ 서양에서는 개인이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하여 금속활자로 인쇄하였지만, 조선에서는 국가가 경제적 이익을 독점하기 위하여 금속활자로 인쇄하였다.

14. [정답] ①

[독해-내용의 파악] 난도 中

서양에서는 금속활자 인쇄술이 널리 전파되었지만, 조선에서는 국가가 독점하여 그 인쇄술이 널리 전파되지 않았다. 이는 이 글에서 밝히고 있다시피 “표의 문자인 ‘한자’와 표음 문자인 ‘라틴 자모’ 사이의 차이 때문”이라 하겠다. 이를 잘 밝히고 있는 것은 ①이다.

문 15. 주민들의 토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주민 1: 도시 사람들이 가끔씩 들러 전원생활을 맛보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농촌 체험 마을로 키워 마을의 소득원을 늘린다면 젊은이들이 살기 좋은 마을이 될 것입니다.

주민 2: 도시로 나갔던 젊은이들이 다시 찾을 수 있는 마을이 되기 위해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 환경을 마련하는 일이 우선입니다. 요즘 젊은 부부들의 교육열이 얼마나 높습니까?

주민 3: 우리 마을은 젊은 귀촌자들이 원주민들과 쉽게 어울리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마을을 많이 찾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을 사람들 모두가 서로 잘 교류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 ① 마을의 소득 향상 방안
- ② 마을의 관광객 유치 방안
- ③ 어린이를 위한 교육 환경의 개선 방안
- ④ 젊은이들이 살기 좋은 마을 조성 방안

15. [정답] ④

[말하기-토의] 난도 下

주민 1, 2, 3이 공통적으로 젊은이들이 살기 좋은 마을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고 있다. 당연히 토의 주제는 ④라고 볼 수 있다.

문 16. 밑줄 친 안긴문장의 종류로 옳지 않은 것은?

나는 ㉠ 내가 평소에 관심이 많았던 중원 고구려비를 조사하였다. ㉡ 중원 고구려비는 장수왕이 남한강 유역의 여러 성을 공략하고 개척한 후에 세운 기념비라고 한다. 5세기 후반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는데, 5세기 후반이면 지금으로부터 1,500년 이전에 세워졌다는 계산이 나온다.

다음으로 문화재청 홈페이지에서 중원 고구려비에 대한 내용을 찾았다. 이 설명은 ㉢ 중원 고구려비가 이제 나라의 재산임을 ㉣ 일반인들도 쉽게 알 수 있도록 보여주고 있다.

- ① ㉠ 관형절
- ② ㉡ 인용절
- ③ ㉢ 서술절
- ④ ㉣ 부사절

16. [정답] ③

[문장의 짜임] 난도 下

㉢과 ㉣은 ‘이 설명은 ㉢을 ㉣도록 보여주고 있다.’라는 문장 속에 쓰였다. ㉢은 목적어 자리이고, ㉣은 부사어 자리이다. ‘중원 고구려비가 이제 나라의 재산이다’라는 문장이 목적어 자리에 쓰였으므로 명사절(목적절)이 된다. 서술절이라 한 것은 잘못이다.

※ 다음 시조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 17 ~ 문 18]

當時에 ㉠ 녀던 길흘 몇 히를 버려 두고
어디 가 둔니다가 이제야 도라운고
이제야 도라오나니 년의 밋음 마로리

靑山은 엇데하야 萬古에 프르르며
流水는 엇데하야 晝夜에 굿디 아니논고
우리도 그치디 마라 萬古靑靑호리라 - 이항, 「도산십이곡」 중에서 -

문 17. 밑줄 친 ㉠과 뜻이 같은 한자는?

- ① 遊
- ② 讀
- ③ 歌
- ④ 行

17. [정답] ④

[고전시가-시조] 난도 上

시조를 정확히 번역하는 훈련을 하지 않았다면 어려웠을 문제이다. ‘녀다’라는 고어는 ‘가다, 다니다’ 나아가 ‘살다, 행하다’ 등으로 번역되는 단어이다. 여기서는 ‘행(行)하다’의 뜻으로 쓰인 것이다.

번역문: 그 당시에 학문에 뜻을 두고 실천하던 길을 몇 해나 버려두고
어디에 가서 다니다가 이제야 돌아왔는가?
이제라도 돌아왔으니 다른 곳에 마음을 두지 않으리라.

청산은 어찌하여 항상 푸르며,
흐르는 물은 어찌하여 밤낮으로 그칠 줄을 모르는가
우리도 그치지 말아서 오래도록 높고 푸르게 살아가리라.

* ① 遊(놀 유), ② 讀(읽을 독), ③ 歌(노래 가)

문 18. 위의 시조를 읽고 쓴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ㄱ.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도전 거리를 찾아가는 모습은 정말 인상 깊었다.
ㄴ. 자연을 경시하고 개발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현대인들은 자연을 섬세히 관찰하여 그 속에서 교훈을 이끌어내는 화자의 태도를 본받을 필요가 있다.
ㄷ. 자신의 과거를 성찰하며 앞으로의 다짐을 하는 화자의 태도는 오늘날 앞만 보며 달려가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자세인 것 같다.
ㄹ. 나도 화자처럼 이전까지의 삶을 반성하여 앞으로 한눈팔지 않고 학문에 전념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했다.

- ① ㄱ
- ② ㄴ
- ③ ㄷ
- ④ ㄹ

18. [정답] ①

[고전시가-시조] 난도 下

텍스트를 벗어난 감상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 거리를 찾아가는 모습’은 작품의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는다.

문 19. 다음 글의 내용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이때 변산(邊山)에 도적 떼 수천 명이 몰려 있었는데, 지방 관청에서 군사를 풀어 잡으려 하여도 잡을 수 없었다. 도적 떼 또한 감히 나와서 노략질을 못하여 바야흐로 굶주리고 곤란하였다. 허생(許生)이 그들을 찾아갔다. (중략) 허생이 물었다. “자네들은 아내가 있는가?” 도적들이 답하였다. “없습니다.” “자네들은 밭이 있는가?” 도적들이 웃으며 말하였다. “아내가 있고 밭이 있다면 무엇 때문에 괴롭게 도적이 되겠습니까?” 허생이 “그렇다면 왜 장가를 들어 집을 짓고, 소를 사서 농사를 짓지 않는가? 살아서 도적이란 이름을 면하고, 거할 때 가정의 즐거움을 누리고, 나가도 쫓기고 잡혀 갈 걱정 없이 오래도록 잘 먹고 잘 입는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을 터인데.”라고 하였다. 도적들이 “어찌 그런 것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돈이 없을 뿐입니다.”라고 하였다.

- 박지원, 「허생전」 중에서 -

- ① 人不知而不慍 ② 無恒産無恒心
③ 人無遠慮必有近憂 ④ 良藥苦於口而利於病

19. [정답] ②

[한문] 난도 上

허생이 도적들에게 장가를 들어 집을 짓고, 소를 사서 농사를 짓지 않느냐고 묻자, 도적들은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돈이 없어 그렇다고 했다. 이 내용과 관련을 맺는 것이 ②이다. 『맹자』에 나오는 표현으로, 삶을 영위해나갈 생업이나 재산이 없게 되면 마음가짐도 흐트러져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다.

* 無恒産無恒心(무항산무항심): 일정(一定)한 생업(生業)이나 재산(財産)이 없으면 올바른 마음가짐도 없어진다.

<오답 피하기>

- ① 人不知而不慍(인부지이불은):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 않는다. 『논어』에 나오는 표현이다.
③ 人無遠慮必有近憂(인무원려필유근우): 사람이 멀리까지 바라보고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반드시 금방 근심이 생긴다. *遠(멀 원), 慮(생각할 려{여}), 憂(근심할 우)
④ 良藥苦於口而利於病(량약고어구이리어병): 좋은 약은 입에 쓰지만 병을 고치는 데는 이로움. * 忠言逆於耳而利於行(충언역어이이이행; 정성스러운 말은 귀에 거슬리나 내 행실을 닦음에는 이롭다. 『공자가어(孔子家語) 육본(六本)』

문 20. (가) ~ (다)의 자료를 이용하여 글을 쓰기 위해 정리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최근 홈쇼핑 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홈쇼핑에 대한 불만 건수도 급증하고 있다. 소비자 보호원에 따르면 가장 많은 불만은 TV 방영 내용과 실제 상품이 상이하다는 것으로 전체의 46.5%이며, 다음으로는 상품의 품질 불량인 25%, 색상, 사이즈 등 주문한 것과 다른 상품이 배달된 것이 12%에 달했으며, 이외에도 교환·반품 등 AS 지연 등이었다.

- ○○○ 신문 기사

(나) 홈쇼핑 업계 현황

	(단위 : %)		
	2010년	2012년	2014년
홈쇼핑 업체 수	100	260	520
홈쇼핑 매출 총액	100	135	157
홈쇼핑 업체별 수익률	100	87	76

- 2015년 국가 경제 현황 지표

(다) 홈쇼핑에서 물건을 구매한 동기

이유	빈도(%)
우연히 프로그램을 보다가 필요할 것 같아서	42.8
가격이 저렴하고 구입이 편리해서	30.1
무이자 할부, 사은품 등 여러 가지 혜택이 있어서	20.2
시중에서는 좀처럼 구하기 힘든 물건이어서	6.9

- 소비자 보호원

- ① (가)와 (나)를 활용해서 홈쇼핑 소비 증가 때문에 무분별한 쇼핑 중독자가 양산되고, 이로 인하여 가정불화 등 각종 사회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 ② (가)와 (나)를 활용해서 최근 홈쇼핑 구매가 증가하면서 업체가 많이 생겨났으며, 이는 필연적으로 소비자의 불만과 업체의 수익 악화를 야기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③ (나)와 (다)를 활용해서 소비자의 충동구매, 그리고 홈쇼핑 업체 수 증가에 의한 업체의 수익 악화를 홈쇼핑의 문제점으로 지적한다.
④ (나)와 (다)를 활용해서 홈쇼핑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소비자에게는 상품 구매 전 충분한 정보를 탐색하도록 권유하고, 업체에는 과잉 경쟁을 자제하도록 촉구한다.

20. [정답] ①

[쓰기-자료 해석] 난도 下

제시된 자료에 대한 언급이 잘못된 경우를 찾으라는 문제이다. ①의 진술에 나오는 가정 불화나 각종 사회 문제의 발생에 대해서 자료 (가)와 (나)가 보여주고 있지 않다.